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제 3841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01일) 2026년 11월 09일 월요일

㈜하랑 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전남광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협의체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력·용수·정주여건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정부·기업·주민과 전방위 소통·협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의 선결과제인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 확보와 기업 투자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특별시와 LH,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전력·용수공급 실무협의체에서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전력공급실무협의체는 7월부터 총 6차례, 용수공급실무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열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구축과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동복댐상생협의체와 정주여건혁신전담팀(TF) 등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등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동복댐상생협의체는 기후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담양군, 화순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주여건혁신전담팀(TF)을 지난 8월 구성, 세차례 TF 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팹 근로자와 가족이 전남광주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교통·주거 등 정주여건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장단 등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직접 소통하며, 협의사항 분야별 과제화 및 관계부서와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기업 대응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SK하이닉스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총 11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10월 9일 최태원 회장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군공항 부지의 방문을 이끌어냈고, 최 회장의 호남 반도체의 확장 가능성과 조기 착공의 강력한 투자의지를 확인했다.

또 지난 10월20일 민형배 시장과 실국장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기업의 투자여건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삼성전자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산단과 연계되는 왕복 8차선 진입도로 및 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반도체 생산공정의 냉각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재이용수 공급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실국별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기아, 루크 동커볼케 CCO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이자 현대자동차·기아 CCO(Chief Creative Officer,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겸 CDO(Chief Design Officer,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Luc Donckerwolke) 사장의 창의적 여정을 조명하는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이 디자이너로 성장하며 품어 온 꿈과 영감이 어떻게 디자인으로 구체화되는지 그 과정을 대중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의 창의적 여정에서 출발한 영감이 관객에게도 전해져 각자의 새로운 꿈과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전시장에는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록과 디자인 작업물을 재구성해 선보인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전시에서 탈피해 실제 디자인 작업 과정이 담긴 기록과 작업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관람객도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11월 24일(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련 학과 학생과 디자인 마니아는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한 명의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공간을 넘어, 꿈과 상상력이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디자인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감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2016년 현대차·제네시스 디자인 총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을 현대차·기아와 함께하며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 왔다.

현대자동차·기아가 루크 동커볼케 사장의 디자인 철학과 창의적 여정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 'Dreams that Resonate(멈추지 않는 꿈)'를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하우스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이가영 기자

